



수감자들의 영혼을 깨우는 음악인들의 공연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는 연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안겨

지난 7월 4일 포항교도소에 젊은 음악전공자들이 구성된 크로스 오버 국악밴드 숲S00P의 공연은 수감자들의 영혼을 깨우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이날 가야금, 피리, 대금, 베이스 기타, 피아노, 드럼, 성악을 전공한 젊은 음악인들로 구성되어진 다양한 장르의 조화와 합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순간마다 저들의 영혼이 오랜 잠에서 깨어나듯이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

특히 삶에 고단하고 힘든 영혼들의 안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위로하심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크로스오버 국악밴드가 이번 포항교도소에서 공연을 하게

된 동기는 지난 4월 교정위원 이기학 목사의 주선으로 경북북부 제2교도소를 공연한 후 약속에 의해서 재능기부 식으로 진행된 것은 실질적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에서 솟구친 순종으로 인하여 이번 공연이 성사된 것이다.

이번 공연을 통해서 처음으로 색다르게 발표된 곡은 “그 길”이었다. 수감자들 앞에서 첫 선을 보인 이 곡은 수용자 중 무기수가 보낸 시를 각색하여 작사 작곡된 것인데 이는 ‘천국의 소망을 심어주는 곡으로 서 삶의 내용을 되새김질 할 수 있으며, 천국의 소망이 이 세상의 삶을 이겨 낼 수 있다는 교백의 내용이 담겨져 있었기에 관람하는 모든 이에게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었다.

놀라운 감동은 수용자들이 이 곡을 마음속 깊이 받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 모습은 본 베이스 기타 연주자인 이성훈 형제는 6개월 된 딸의 아버지로 수용자들 중에는 누나와 이모가 되어 어머니와 딸이 가슴이 너무 아파 연주하는데 힘들었다고 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주님의 온기가 들어가서 재범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하는 소망이라며 고백한다.

숲밴드의 매니저인 김민정 자매는 자신들의 음악이나 연주가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와서 공연을 하겠으며, 힘든 영혼들에 숲 같은

평안함을 주는 것이 자신들의 사역이라며 감사했고,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린다고 했다. 젊은 음악 전공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기도소에서 공연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여 공연을 다한 숲밴드에게 포항교도소의 한 직원은 감사하다며 인사했다.

7월의 어느 날... 포항교도소에서 주님의 사랑으로 공연을 관람한 수용자들의 마음에 무더위까지 날려버린 잔잔한 은혜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숲의 편안한 힘의 시간이 계속 이어지길 기원해 본다.



인천시온교회 조영만 목사 이전감사예배 드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부수) 한중노회 직전노회장 인천시온교회(담임목사 조영만)에서 지난 7월 1일(토) 오전 11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소재 시온교회 본당에서 이전감사예배를 드렸다.

조영만 목사는 인천시 남동구 구월동 에스파스 지층에서 시온교회를 설립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부흥을 가져왔고, 열 건물에 있는 노래방을 빌려 주일이면 물려든 성도들을 분산하여 예배를 드리던 중 하나님

의 은혜로 만수동에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건물 3층 100여 평에 시온교회를 이전하고 감사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 주심 가운데 이전감사예배를 드린 이날 담임 조영만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 한기장 목사(부노회장)가 기도하고, 김승환 목사, 김희정 사모의 은혜로운 특송에 이어 김관호 목사(한중노회 서기)가 행 20:26-35를 봉독하고 노회장 김국태 목사는 “교회의 귀중성”이란 주제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정다민 학생(시온교회)의 봉헌연주가 진행되고 경기도 화성 아름다운교회 권병주 목사의 봉헌기도가 있은 후 중경노회장 강대일 목사의 축사에 이어 특별성무에 김지혜 사모, 선물전달식에 김은희 목사, 윤광영 집사, 축하영상에 백승문 목사, 아울러 보고 담임 조영만 목사의 광고를 끝으로 예정함동부수총회장 이규필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성명서]

북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규탄성명서

북한이 어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형을 발사했다. 이제 북은 핵탄두미사일로 한반도 전역은 물론 동북아와 미국 본토까지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력을 갖게 되었다. 전 세계가 아무리 평화를 부르짖어도 북한은 오로지 인류 공멸을 가져올 전쟁 준비에 광분하고 있음을 증명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쏜 날은 미국의 독립기념일과 7·4 남북공동성명 45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은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고 촉구한 바로 다음 날 보란 듯이 반인륜적 미사일 도발로 응수함으로써 그 기회를 발로 차 버렸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올해만 벌써 10번째이다. 인민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전쟁광적 집착으로 핵무기 개발에 올인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 우리는 언제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의 대북전략이 갈팡질팡하는 동안 북한은 마침내 ICBM을 보유한 군사강대국 반열에 올랐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북한 도발 중단을 조건으로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원론적 낙관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북한의 목표는 핵보유국 지위를 얻는 것이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되면 한국을 재기고 미국과 직접 협상에 나설 것이 볼 보듯 뻔하다. 인민이 굶어죽든 말든 오로지 핵무기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북을 상대로 우리 정부는 언제까지 ‘북핵 폐기’라는 원론적 대책에 머물러 있는 것인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맞설 최소한의 방어체계인 사드배치를 놓고도 국론이 분열되는 우리의 취약한 안보 체계로는 북한의 전쟁 위협에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북의 거듭된 도발이 우리의 안보의식을 습관적으로 둔감하게 만드는 동안 북한은 언제든 맘만 먹으면 전쟁을 감행할 수 있는 위치에 도달했다는 것을 우리 국민은 분명히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탄두미사일 실험 발사 성공으로 기고만장한 북한의 거듭된 도발을 저지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튼튼한 안보의식으로 무장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한반도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강력한 대응 안보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과, 나아가 한미일 3국에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전 세계적 국제공조를 통해 북한이 더 이상 무력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억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7.7.5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본 공회에서 제작하여 보급된 성경을 들고 기뻐하는 가나 사람들



▲주일학교에서 성경 교재를 받은 시리아 학생들

전 세계 성경전서 3,400만 부 이상 반포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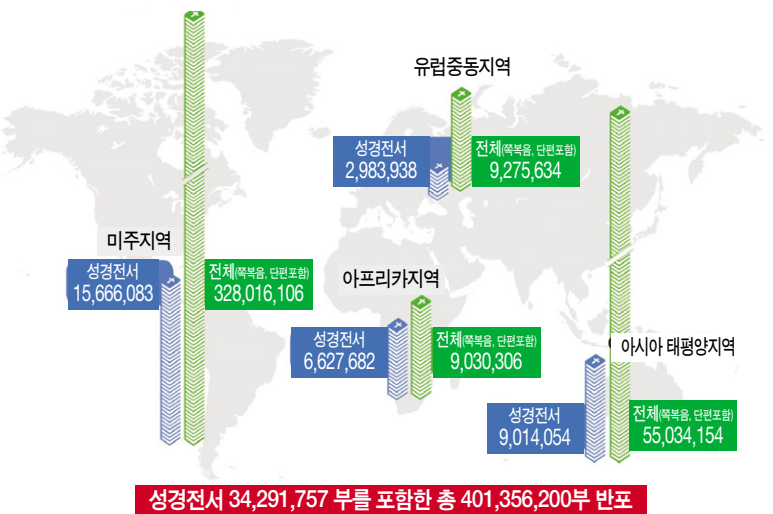
세계성서공회연합회에 따르면, 2016년 전 세계에 성경 약 3,429만 부가 반포되었으며, 신약, 단편, 전도지 등을 포함하여 총 4억 140만여 부의 성서가 반포되었다.

이슬람 무장단체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인해 긴장과 불안에 휩싸인 유럽, 중동 지역에서는 2015년에 비해 57만 부 가장 증가한 298만 여 부의 성경전서를 보급하였다.

국민 10명 중 9명이 무슬림인 방글라데시에서 방글라데시성서공회는 도서 박탈과, 농촌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신약성서 반포 사업을 진행하였고, 2015년에 비해 총 8배 이상인 105,081부의 신약성서를 반포하였다. 방글라데시성서공회 담당자는 “이 성서들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변화되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교회의 출석률이 증가하고 있으며 각 가정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라며 성서보급 증가의 변화를 이야기했다.

전체 성서 보급 대비 성경전서

2016년 세계 성서 반포 현황(출처:2016년 성서 반포 보고,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반포 비중이 높은 아프리카 지역은 662만 여 부의 성경전서를 보급하였다. 이는 공급된 전체 성서 자료 중 약 73%이다. 성경전서 보급수는 2015년에 비해 약 94만 부 가장 감소하였고, 전체 성서 보급수 역시 지난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미주지역은 2015년에 비해 약 91만부 가장 증가한 1,566여 만 부의 성경전서를 포함한 전체 성서

보급수가 3억 2천여 부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급하였다. 2013년부터 ‘쿠바에 백만 부의 성경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쿠바성서공회의 단편성서 보급은 두 배로 늘어나 35만 여 부를 보급하였고, 점차 늘어나는 성서 반포를 기록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더 많은 사람들이 성경과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다.

한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2015년에 비해 약 63만부 가장 감소하여 901만 부의 성경전서를 보급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성이 절실한 때이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를 비롯한 각 성서공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비인쇄 매체 성경을 개발하고 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 담당자는 “성서공회들은 성경을 인쇄하는 사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디지털 성경 사역을 발전시키는 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전 세계의 지구촌 이웃들이 모두 성경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하였다.

스마트폰 QR코드로
지저스타임즈를
볼 수 있습니다.



(사)한기보협 6.25 67주년 기념식 - 성경원형회복 세미나 열어



(사)한국기독교보수교단협의회 (이하, 한기보협) 대표회장 지왕철 목사는 지난 22일 서울 여전도회관에서 6.25 67주년 기념식 및 성경원형회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부로 나뉘어 진행되면서 1부는 6.25 67주년 기념식으로, 2부는 성경원형회복 세미나가 진행되었다.

1부 기념식은 예장(영신)총회 증경 총회장이며 협의회 공동회장 겸정신 목사가 사회를, 설교는 예장(합동총본)총회장 송춘길 목사가, 기도는 예장(합동장신)총회장 백수현 목사가, 성경봉독은 예장



(예신)총회 총무 박종열 목사가, 특별찬양은 찬양사역자 김재길 목사와 손명자 강도사가, 특별기도는 협의회 공동회장과 신학위원회 총무 및 예장(예복)총회장인 광영민 목사가, 봉헌찬송은 금빛교회 오나역 사모의 몸찬양을, 봉헌기도는 협의회 법인이사 사금열 목사가, 인사엔 대표회장 지왕철 목사가, 총회장은 민정식 목사가, 축도는 상임회장이며 예장(호헌)총회장인 한홍교 목사가 각각 맡았다.

이날 특별기도에서 예장(예복)총회장 광영민 목사는 국가 안녕

과 통일(동성에 반대와 포괄적 차별 금지법 반대)을 위하여, 협의회와 회원 교단 발전을 위하여, 한국교회와 성경원형회복을 위하여 기도했다.

설교에 나선 송춘길 목사는 6.25 67주년을 기념하여 잊지 않고 하 나님께 예배함에 대하여 전하며,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지지 않고 버티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 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 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 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는

말1:20-21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위한희생”이란 제하의 말씀을 증거하였다.

종식 후 2부 세미나에 총 2강의가 진행되면서 예장(호헌) 신학위원회 이며 지도위원 조조복 목사(부총회장)가 총진행자로서 예장(세계선교연합)총회장 이만나 목사의 대표기도가 있었다.

1강은“성경적 기독교란?”주제를 가지고 세계제자훈련원장 이형조 목사가, 2강은 “성경원형이란?”주제로 협의회 대표회장 지왕철 목사가 강의를 하고 축도로 마무리했다.

본지 사무국장 광영민 기자

청정 호반도시 춘천을 위한 환경정화 캠페인

5월 27일부터 6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연인원 500여명의 성도 캠페인 참석



성도와 노년층은 주변에 있는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깨끗이 정리하는 일을 하였다.

이 환경정화 캠페인은 5주 동안 매주 토요일에 실시하여 6월 3.10.17.24일까지 진행, 연인원 5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춘천 시내와

본교회 주변 및 등산로, 춘천 외곽인 소양 3교 및 도로, 소양댐 방향도로 및 자전거 도로 등에서 실시하였다. 환경정화 캠페인 후에는 교회식당에서 총여선교회가 준비한 사랑의 식사를 함께 나누었다.

대구 기독교단체 쿼어 축제 반대집회 열어

대구 기독교계에서 지난 22일 쿼어(동성애)축제를 저지하는데 돌입했다. 대구·경북지역 교회와 기독교단체들이 동성애자들의 불건전한 쿼어(동성애)축제 저지에 총력전을 펼친다. 이들은 “동성애자들이 인권, 사랑, 소수자 보호라는

명분으로, 쿼어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위장하며, 백주 거리에 나와서 음란광란일몰 거리행사를 하는 것은 건전한 미풍양속을 파괴하고, 청소년들의 성의식과 가치관을 왜곡시키게 된다”며 “동성애 확산은 건강한 가정을 파괴하

고 청소년들을 병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환 대가총 인권문제대책위원회 대표위원장은 “교회는 잘못된 성문화와 성윤리를 바로 세워 한국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동성애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시민들에게 알려 피해를 줄여야 한다”면서 “한국교회는 이를 위해 죄와 싸우며 싸우기까지 하며 동성애를 막아주고 동성애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섬겨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성도들도 자발적으로 지난 12일부터 대구 동성로에서 1인 시위를 벌이며 동성애의 실태를 알리고 있다. 대구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승희 목사)는 15일 대구지역 500개 교회에 ‘대구쿼어(동성애)축제 반대집회 참석의 건’ 공문을 발송하고 24일 오후 2시부터 2·28기념 중앙공원에서 ‘생명, 사랑, 가족’의 주제로 대구쿼어축제 반대집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대구지사장 박수영 기자(목사)



지저스타임즈

www.JTNTV.kr 기독교인터넷방송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다-07837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대표인: 표정진목사 이사장: 조강수목사 사장: 소진우목사 발행인: 장남목사

전국 24개 지사 / 해외 27개국 지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고강본동 574-10, 대운빌라 2층 202호)
▶E-mail : jtpress@hanmail.net / jntvcpi@naver.com
▶전화 : (032) 672-3031(팩스경음) ▶직통 : (070) 8230-0034
▶H.P : 010) 5468-6574
▶정성을 다한 후원금은 도시 농어촌 미자립교회와 해외지사에 신문을 보내는 선교사가 됩니다. 문선교회 후원이사가 되어 주십시오.
▶1구좌 후원금 10,000원부터~
▶1년 구독료 : 48,000원
▶후원계좌(예금주 : 정기남)
하나은행 758-910292-36807 / 농협 455030-56-005509

절이 변하여 교회가 된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Come & See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관항길242번길75
전화: 010-7172-0675, 011-204-6795
팩스: 031-366-2235 홈페이지: www.gdfc.kr



담임목사 박영미

오순절교회협의회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전성서수련원)



원로목사 이철재 감독



담임목사 이정민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깨는 자유함이 있나니(고후 3장 17절)

예배 안내	요일	시간	장소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 (2층)
기도원 예배	주일	오후 3:00	푸른초창기도원
유초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기도실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지하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주일	오후 2:00	본당 (2층)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6:00	지하성전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지하성전
금요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성전
중고등부 기도회	토요일	오후 4:00	기도실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 이 나라 이 민족을 무당사상으로 부터 출애굽하자!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련원(이전 031-634-3590)
부설 : 새생명어린이집 (02-464-3107)

대한예수교 장로회 행복샘교회

기적의 치유집회



강사 박수영 목사

- 한국어목성성경학원장 원장
- 지저스타임즈 대구지사장
- 경북대학교병원교회목원목원
- 행복샘전치유센터 원장
- 동부교회 노회장
- 행복샘교회 담임목사

집회 고침받은 내용

- ☆ 최병욱 : 심장병으로 숨막히고 쥐어짜는 고통에서 고침받음
- ☆ 류정호 : 만성변비로 가야기독대병원에서 퇴원 장례준비중 고침
- ☆ 김소영 : 류머티즘관절 평생지병 집회중 선포 기도후 고침받음
- ☆ 남영수 : 재생불량성빈혈 경대병원 매주 수혈받으며 투병하다 고침
- ☆ 김영자 : 만성두통과 불면증으로 10년 동안 고생하다 고침 받음
- ☆ 박수영 : 30년동안 피부병으로 고통받다 치료받은 이것이 나의간증
- ☆ 강복희 : 뇌경색으로 왼쪽 전신 마비되어 투병하다 집회중 고침받음
- ☆ 김복자 : 고혈압 20년 지병 정상으로 고침 받음

예배시간안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예배	오후 7: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금요치유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9:00	새벽 기도회	오전 5:00
청소년부예배	오후 2:00	중보기도모임	매일 8:00

대구광역시 동구 요목로 36-5(요목동) 3층 ☎41232
☎ 053-752-8238 010-8537-8291

대한예수교 장로회 동천교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역대상 16:34)

담임목사 이 규 필
(합동보수 총회장)

예/배/시/간/내

주일대 예배	오전 11:00	영 아 부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유 치 부	오전 9:00 오후 1:2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유, 초등부	오전 9:00 오후 1:20
금요일기도회	오후 9:00	중, 고등부	(주일)오전 11:00 (토) 오후 6:00
구역예배(금)	각 구역별로	청년, 대학부	(주일)오전 11:00 (토) 오후 6: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성령충만기도회	(수) 오후 7:30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
☎02)854-1326

순복음춘천교회,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전도사역 실시

작년 단양순복음교회에 이어 올해 주문진순복음교회 협력



춘천성시화를 위하여 매주 목요일마다 교구별로 전도사역을 해 온 순복음춘천교회(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담임 이수영 목사) 전도팀 80여명이 6월 13일(화) 주문진지역 전도와 주문진순복음교회

전도사역을 하였다. 작년에는 단양순복음교회(담임 김성진 목사) 요청으로 전도팀이 단양지역전도를 하였으며, 올해에는 주문진순복음교회(담임 방주훈 목사) 요청으로 전도사역을 하게 되었다.

대형버스 2대(전도팀), 스타렉스(전도팀), 용달(사랑의 봉사대)에 탑승하여 오전 8시30분 교회를 떠난 전도팀은 주문진순복음교회에 도착하여 정종승 목사(순복음춘천교회 총괄담당) 인도로 도착예배

를 드리고 주문진 지역과 전도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였다. 방주훈 목사의 격려사와 지역소개 후 사랑의 식탁의 교제를 나눈 후 주문진 지역 전도를 시작하였다.

춘천에서와 같이 사랑의 봉사대가 교구별로 천막을 설치하고, 부치기, 떡볶기, 음료수, 과일, 풍선 전도, 환경정화 캠페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전도지를 전하며 전도활동을 하였다. 순복음춘천교회 전도팀은 모든 필요한 전도물품을 준비 제작하여 사용하였고, 전도팀 식사까지 자체 해결하여 지역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있다.

80여명의 전도팀이 강원도립대, 향구원터, 중앙공원, 주문진초등학교, 주문진순복음교회 등 주문진 시내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었다. 대형마트 앞 직원들의 전도방해와 전도 중 소나비가 내려 어려움도 있었으나 모두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였다. 전도 후 주문진순복음교회에서 지역과 지역교회, 전도의 열매를 위해 기도회를 하였다.



웨신총회 2017 전국 목회자 하계수련회 성료

주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총회장 이영풍 목사·사진)에서는 지난 6월 19일(월)-21일(수)까지 강원도 강릉시 육계 '한국여성수련원'에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큰 원과 충전으로 현장목회에 큰 역사가 있기를 기원하면서 2017년도 목회자 하계수련회가 개최됐다.

총회 서기 박우재 목사의 인도로 개최예배가 진행되어 동서울노회 이병만 목사가 기도를, 영남노회장 해소리 목사가 성경봉독(삼상22:1-5)하고, 김미라 목사의 특송에 이어 총회장 이영풍 목사는 “아들답게 모인자들”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 총회장은 이날 다윗을 찾아 아들답게 모인 자들을 주제로 세 가지들 예를 들면서 첫 번째 아들답게는 피난처요 보호처란 뜻이 있듯이 목회자는 목회현장에서 환난을 당하기도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빛진 자 되기도 하고 그래서 마음이 원통할 때가 많지만, 이번 수련회를 통해 힘을 얻을 뿐 아니라, 크신 위로가 있기를 축원했다.

둘째로 아들답게는 기도하는 곳이라고 했다. 하나님을 원망할 만한 처지였으나 다윗은 절망의 자리에서, 원통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었다고 했다. 셋째는 아들답게는 피난처라고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떠나는 장소라고 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귀한 존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서 지금은 비록 “환난을 당한자요” 빛진 자요” “마음이 원통함을 당한자”와 같은 모습이지만, 우리는 그냥 위로나 받으며 아들답게 머물러 있으면서 인생을 마칠 자는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제 아들답게 같은 이곳에서, 2박 3일의 일정이 시작되었으며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는 수련회가 되기를 기원했다. 그러면서 아들답게에 피했던 자들이 다윗왕국의 개국공신이 되어 다윗왕국의 주축을 이루었던 것처럼, 바로 여러분이 새롭게 펼쳐갈 웨신총회 역사의 새 주인공들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절망을 다 토해내야 할 것이며, 나의 원통함을 풀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간절하고 진지하게 기도할 것을 권했다. 또한 사랑과 열정이 담긴 특강을 통해서 총회는 물론 노회와 섬기는 교회가 화합되

고 성숙된 삶을 이루어나가자며 기원했다. 이어 총무 신언창 목사가 경과보고 및 광고를, 직전회장 신동근 목사의 축도로 개최예배를 마쳤다.

웨신총회는 20일 아침 부회계 최선녀 목사의 예배인도로 한시노회 김기출 목사의 기도로 부총회장 하종우 목사는 히11:1-12절을 본문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란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축도했다.

21일 오전 6시30분 중부노회장 황봉기 목사의 인도로 폐회예배가 시작되어 호남노회장 박정균 목사가 기도를, 부총회장 허창범 목사는 시1:1-3절을 중심으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의 설교를 끝으로 진행위원장 박우재 목사의 광고, 증경총회장 이흥규 목사의 축도로 아쉽게만 화기에애한 가운데 각기 목양지를 향해 발길을 돌려야 했다.

2017년도 웨신총회 하계수련회 특강순서로는 허창범 박사가 “목회자의 정체성을 회복하자”는 주제로 강의를 했으며, 성용구 목사는 “효자 나무꾼과 도깨비”에서 찾은 이야기의 중요성을 주제로 열강했다.

목회현장에서 에너지가 소멸되는 듯 지친 목회자들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영적인 재충전을 위하여 둘째날 웨신총회 목회자들은 강원도 일부를 관광하는 힐링 투어의 시간을 가졌다.

한편 총회장 이영풍 목사의 개최예배 설교와 허창범 박사의 특강은 지저스타임즈 JTNTV (<http://jntv.kr>)에서 영상을 통하여 다시 볼 수 있다.

합동보수 2017년 교역자 부부하계수양회 성료

주제 :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마 28:1-10)

예장(합동보수)총회(총회장 이규필 목사·사진)는 2017년도 교역자부부하계수양회를 지난달 (2박3일)간 충북 보은군 속리산면 사내리 “국립공원 속리산 연승호텔”에서 진행되어 총회의 발전과 목회자의 자질과 서로의 신뢰성 회복을 강조하면서 화기에애한 가운데 성료되었다.

첫날 대회 준비위원장 전예희 목사(신광교회)가 1부 개최예배를 진행하면서 총회 서기 임상국 목사가 기도를, 총회장 이규필 목사는 마 28:1-10절을 인용“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만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대회 회계 송인섭 장로가 현금기도를, 대회 준비위원장 전예희 목사

가 대회선포를, 대회총무 조영만 목사의 광고 후 총회장 이규필 목사의 축도로 1부 개최예배를 마쳤다.

2부 순서로 대회총무 조영만 목사의 인도로 특별기도회가 시작되어 1.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김상대 목사, 2.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 최철복 목사, 3. 총회와 신학교를 위하여 정말달 목사, 4. 노회와 지교회 부흥을 위하여 한기장 목사, 5. 수양회와 특별교육을 위해 주요한 목사가 각각 기도



했다. 합동보수는 30일(화)오전 6시 총회 회록서기 서재식 목사의 인도로 기도한 후 서경노회장 김주현 목사가 성경봉독(민 11:1-3)하고, 대회 준비위원장 전예희 목사는 “방각”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대회총무 조영만 목사의 광고 후 서인노회 증경노회장 박용순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날 저녁 8시 특별교육에서는 총회 부회계록서기 김상대 목사의 인도로 경남노회 김영주 목사의 기도, 김승환 목사의 대금연주가 있는 후 윤석철 증경총회장은 시

90:3-10절을 중심으로 “가는 곳이 어디 메노?”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였으며 대회총무의 광고가 있는 후 한중노회 증경노회장 이세중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또한 예장(합동보수)총회는 31일(수) 오전 6시 폐회예배를 끝으로 2박 3일 동안 2017년도 본 총회 교역자부부하계수양회가 막을 내렸으며, 이날 새벽 폐회예배는 대회 서기 김관호 목사의 인도로 시작되어 강남노회장 강치현 목사가 기도를, 증경 총회장 서동기 목사는 막 9:28-29절을 인용“기도의 능력이다”라는 제하의 말씀으로

설교했다. 아울러 대회 준비위원장 전예희 목사의 폐회선포 및 대회총무 조영만 목사의 광고 및 인사기 있는 후 한중노회장 김국태 목사의 축도로 2박 3일간의 총회 교역자부부하계수양회가 화기에애한 가운데 아쉬움을 뒤로하고 2018년을 기약하며 모든 일정을 마쳤다.

한편 총회장 이규필 목사, 대회 준비위원장 전예희 목사, 증경총회장 윤석철 목사, 증경총회장 서동기 목사의 은혜로운 설교 4편이 지저스타임즈 (<http://jntv.kr>)를 통해서 동영상상 시청할 수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웨신)총회



이영풍 목사
(빛교회)



김안식 목사
(설만한물가교회)



허창범 목사
(푸른솔교회)



하종우 목사
(바울선교회)



신언창 목사
(성암교회)

본 총회는 보수신앙과 개혁주의 신학의 버팀목이자 교계의 표준인 웨신은 영혼구원과 세계선교를 목적으로 큰 꿈을 가진 모범총회로서 주님께 영광을...

목사안수 및 교단 가입문의 : 010-8602-3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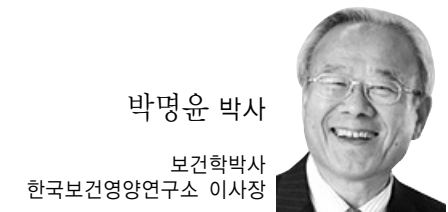


총회사무실 : (우)0736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172 (301호)
(☎02) 835-2606-7 Fax(02) 835-2608 <http://ws21.org>



■ 靑松 건강칼럼 (577) - 당뇨병과 대장암

대장암(大腸癌, Colon Cancer)



박명운 박사
보건학박사
한국보건영양연구소 이사장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 기구(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는 2030년 우리나라 대장암 발병 건수는 현재보다 2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위암, 간암 등 주요 장기의 암 발생률은 꾸준히 줄고 있으나 대장암 발병은 오히려 증가추세이다.

남성 대장암 발병률은 1999년 10만 명당 20.6명에서 2014년에는 53.1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대장암 환자는 2012년 13만6천여 명에서 2016년 15만6천여 명으로 5년 간 15% 가량 증가했다.

대장(大腸)은 소장(小腸)과 연결되어 있으며, 길이는 약 2m이다. 대장은 맹장(盲腸), 결장(結腸), 직장(直腸)으로 나누며, 결장은 상행(上行)결장(ascending colon), 횡행(橫行)결장(transverse colon), 하행(下行)결장(descending colon), S상(狀)결장(sigmoid colon) 등 4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직장은 결장 하부에서 항문 바로 윗부분까지 15cm 가량을 말한다. 항문(肛門, anus)에는 외괄약근과 내괄약근이 있다.

대장암과 직장암은 각각 결장과 직장의 점막에서 발생하는 악성 종양으로 대장 점막(粘膜)이 있는 대장, 직장의 어느 부위에서나 대장암이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자주 암이 생기는 부위는 S상결장과 직장이다. 전체 대장암의 약 2/3 이상이 직장과 S상 결장에서 발생한다.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 김남규 교수 연구팀과 스포츠레저학과 전용관 교수 연구팀, 그리고 하버드대 부속 암전문 병원 마이어하트 교수팀이 공동으로 총 4,131명의 대장암(大腸癌)과 직장암(直腸癌) 환자를 대상으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분석한 결과가 SCI급 국제학술지 <PLoS ONE>에 게재되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장암 환자가 당뇨병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경우 사망률이 46%, 그리고 대장암의 재발률이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0세 미만

남자의 경우 104% 사망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직장암 환자의 경우에는 당뇨병으로 인한 암의 재발과 사망률의 증가는 볼 수 없었다.

그동안 당뇨병이 대장암 및 직장암 환자의 사망률을 높인다는 연구는 모두 대장암과 직장암 환자를 하나로 묶어 분석한 연구의 결과였다. 이에 대장암과 직장암 환자를 나누어 당뇨병이 대장암과 직장암 환자의 재발과 사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것은 세계에서 최초이다.

대한대장항문학회가 2005-2009년 건강검진을 통해 대장내시경과 위내시경 검사를 받은 51만 9,866명을 대상으로 위암과

제기구로 용종을 절제하고 조직검사도 할 수 있어 진단뿐만 아니라 치료까지 가능하다. 용종을 완전히 제거하는 경우 대장암의 80% 정도를 예방할 수 있으므로 용종은 반드시 절제해야 한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해도 대장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를 중간대장암이라 부른다. 중간대장암 발생원인의 약 20%는 용종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불완전 절제가 원인이다.

가톨릭대학 서울성모병원 소화기내과 이보인 교수 연구팀이 2012-14년 41세 이상 138명의 대장용종환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7mm 이하의 중앙성 용종을 단순히 조직검사용 겸자(鉗子, forceps)로 제거하면 불완전절제율이 13%, 특히 5-7mm 크기의 용종 불완전 절제율은 30%로 높았다. 이는 금속올가미로 용종의 아래를 조여서 잘라내는 방법을 사용하면 불완전 절제율이 3%, 5-7mm의 경우 6% 정도이므로 용종의 완전한 절제를 위해서는 ‘올가미’를 이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장암의 원인으로 유전성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전체 대장암의 약 10-30%는 유전적 요인이며, 20-30대에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선종이 대장에 발생하여 설사, 복통, 직장 출혈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대개 45세까지 95%

대장내시경검사 등이 있으며, 50세 이상이면 매 5-10년마다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검사가 고통스럽거나 내시경검사 준비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검사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수면(睡眠)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도록 한다.

초기 대장암의 대부분은 별다른 증세를 느끼지 못한다. 진단은 건강검진 시 분변 잠혈 반응검사를 실시하며, 때변에 포함되어 있는 극소량의 출혈까지도 확인하여 대장암 가능성을 알 수 있는 간단한 검사이다. 그러나 대장암을 확인하기 위하여 반드시 추가 검사를 받아야 한다. 대장내시경검사는 암의 존재 유무를 관찰함과 동시에 조직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용종(폴립)이 있으면 절제하여 치료까지 할 수 있다.

치료는 암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암이 점막 내에 국한되어 있으면 내시경으로 절제가 가능하지만, 점막하층 이상을 침범한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된다. 수술은 대장암 부위를 중심으로 앞과 뒤 정상대장을 포함해 주위 림프절을 절제한다. 직장암은 수술 전에 방사선치료와 항암제를 같이 투여하는 병용요법으로 항문보존과 극소재발을 줄이고 있다.

국제적으로 항문(肛門)을 통한 대장암 제거 수술은 4년 전부터 시작됐다. 수술은 전신마취를 한 뒤 항문에 수술 기구와 카메라가 들어가는 구멍이 3개 있는 수술 설치기를 끼우고 한다. 이 설치기를 통해 수술 기구가 대장으로 들어가 암 부위를 자르고 묶으며, 제거된 암 덩어리와 대장은 항문으로 빼낸다. 이에 몸에는 수술 흉터가 전혀 남지 않는다.

이화여자대학교는 강상원 교수(생명과학과)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대장암세포에서 핵심 신호단백질 기능을 조절하는 새로운 분자 메커니즘을 규명했다고 지난 6월 30일 발표했다. 연구팀은 이를 활용하면 향후 5년 이내 혁신적인 대장암 항암치료 기술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연구논문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Nature Communications)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대장암 예방을 위하여 발병 요인을 숙지(熟知)하고 평소에 올바른 생활습관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야 한다. 대장암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잘못된 식생활이 발병률을 높이는 위험요소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대장암 예방은 식탁에서 시작하여 건강한 식습관을 지켜야 한다. 또한 흡연과 과음을 삼가고, 비만인 경우 체중 조절을 하여야 한다. 50세 이후에는 정기검진을 꼭 받아야 한다.

검사는 대변잠혈(大便潛血)반응검사,

“대장암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하여 조기발견 및 예방이 가능”

대장암의 진단 양상을 조사한 결과 3, 4기 후기 진행 암의 비율은 대장암이 위암에 비해 2.7배 높았다. 특히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방문해 대장암 진단을 받은 경우는 3, 4기 비율이 51.6%에 달했다.

대장암은 대장내시경 검사를 통하여 조기발견 및 예방이 가능하다. 즉,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다가 대장용종(大腸茸腫, colon polyps)이 발견되면 곧바로 조직검사나 절제술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증상이 없는 50대 남녀에게 건강검진의 목적으로 대장내시경을 하면 20-30%에서 용종이 발견된다.

용종은 대장 점막이 비정상적으로 자라 혹이 되어 장 안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것을 말하며, 암이 될 가능성이 적은 과증식성 용종, 염증성 용종 등과 암으로 변할 수 있는 선종성 용종이 있다. 대장암은 대부분 암으로 넘어가기 전에 용종(폴립)이라는 양성 종양의 단계를 거치며, 용종이 암으로 발전하는 데는 5-10년이 걸린다.

내시경검사로 용종이 발견되면 용종절

제시 암이 발생하는 가족성 용종증과 유전성 비용종증 대장암이 있다.

한편 대장암의 약 85%는 환경적 요인으로 주로 식습관과 연관이 있다.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하여 젊은층의 대장암 발생이 늘고 있다. 대장암 발병은 육류 섭취량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즉, 과다한 동물성 지방과 육류(특히 붉은 고기) 섭취는 대장암 발생을 촉진하는 인자로 작용한다. 한편 식이섬유는 발암물질의 생성을 억제하며, 변비도 예방하므로 대장 점막이 발암물질과 접촉하는 기회를 줄여준다. 이에 매일 채소와 과일을 200g 정도 충분히 섭취하도록 한다.

대장암은 정상 대장점막에서 초기선종, 진행선종의 단계를 거쳐 대장암으로 발전하는데 대개 10-18년이 필요하다고 보고되어 있다. 정상점막세포가 용종(폴립)으로 변하는 데 7-10년, 용종이 암으로 진행하는데 3-8년이 걸린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으면 전암 단계 또는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

검사는 대변잠혈(大便潛血)반응검사,

3박자 건강 “한방과 자연의학” (68)

“자연식품 항암효과 높은 최고의 보약”



황성주 박사
사람의 클리닉 원장

얼마 전 연구결과에 의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즐겨 먹는 산나물에 암세포의 생성과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특히 취나물, 냉이, 씀바귀, 잔대순, 비름, 민들레 등 10여 종은 80~100%까지 암 세포 억제효과가 있고 고들빼기, 부추, 솔가지, 달래 등 11종의 산채도 60~80%의 억제효과가 있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은 연구대상인 21종의 산나물 모두에서 항암효과가 입증됐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70% 이상의 항암효과가 있는 식물로 학계에 보고된 것은 조사대상인 1백여 종의 채소와 과일 중 은행, 생강, 호두, 토란, 양상추, 파슬리 등 10여 종에 불과한 것과 비교하면 나물을 좋아하는 우리 겨f는 암 예방의 차원에서 자연의 특혜를 톡톡히 누리고 있는 셈이다.

사실상 대자연이 제공하는 자연 그대로의 식품은 최고의 보약이다. 산과 바위를 뚫고 나오는 자연 그대로의 ‘광천수’가 최고의 약수로 각광을 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최고의 건강식인 오탁밥, 파부미용에 좋은 울무, 최고의 노화방지제인 마늘과 찹게, 최고의 당분인 꿀, 건위작용과 정장작용이 있는 사과즙, 비타민C의 공급인 풀과 감잎차, 눈의 건강을 지키는 결명자차, 천연 소화제인 파인애플 등 모두가 자연이 준 최고의 건강식이다.

또한 비타민 E의 보고인 당근, 건뇌식품으로 최고의 호두와 잣, 혈압을 낮춰 주는 천연 혈압강화제 미역과 양파, 천연 거담제인 도라지, 알지의 단백질과 지방의 공급원인 콩 등 따지고 보면 우리가 흔히 대하는 자연식품 모두가 암과 성인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증진시키는 최고의 보약이다.

자연의학이 한방에 우선한다. 지금도 부작용이 미처 밝혀지지 않은 무수한 한약제에 비해 자연식품은 안정성이 이미 확보되어 있기 때문이다. 만약 식생활에 대한 바른 진단과 균형잡힌 식생활이라는 처방없이 보약만 팔겠다는 약체가 있다면 그는 스스로 의료인이 아닌 장사치임을 고백하는 것이 된다.

물론 명백한 질병에 대한 치료약일 경우는 별 문제가 없겠으나 단순히 보약만 필요한 경우는 최고의 보약인 자연식품에 의한 바른 식생활이 먼저 시도되어야 마땅하다. 자연의학이라는 대중적 건강법이 무시되고 상흔이 판을 치는 오늘날의 건강사업 형태가 안타까울 뿐이다. 이쯤되면 건강의 결정적인 키는 의료인이 아닌 주부에게 달려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주부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최고의 요리가 가족의 건강을 지킨다. 엄마의 정성, 아내의 사랑이 가정이라는 천연치료센터의 주치의가 아닐까?

지저스타임즈는 광고와 구독료로 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저스타임즈 독자 제위께

본 신문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는 독자 여러분의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일터위에 선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저스타임즈는 여러분의 구독료 및 선교비 및 광고비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연간 48,000원의 구독료는 후원료 및 인쇄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사는 독자 여러분의 자유로운 납부제도를 우선하고 있습니다. 구독료와 문서선교를 위한 후원금을 보내주시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아직껏 구독료를 입금하지 않으신 분께서는 꼭 부탁을드립니다. 항상 강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지저스타임즈
발행인 정기남

후원 계좌 하나 : 758-910292-36807 정기남
계좌로 구독료를 보내실 때는 반드시 독자의 실명으로 보내주시며
농협 : 455030-56-005509 정기남 010-5468-6574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우체국 : 310029-02-152769 정기남

■ 존경하는 독자님들의 구독료로 언론방송신문을 도와주십시오. 1년 48,000원



지저스타임즈
THE Jesus Times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TEL 070)8230-0034, FAX겸용 032)672-3031, H.P 010)5468-6574
E-mail : jtpress@hanmail.net / jtntvcjpj@naver.com



〈성명서〉 한국교회 본말 야기하는 한교총 출범 즉각 중단하라

(가칭)한국교회총연합회가 한국교회의 제4의 연합단체로 공식 출범하려는 데 대하여 본회는 한국교회의 하나됨을 열망해 온 1천만 성도들의 뜨거운 기도와 성원으로 찬물을 끼얹은 무책임하고 독단적 행위로 간주하고,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월 출범식을 가진 한국교총은 교단장회외에 참여하고 있는 교단의 현지 총회장들이 본회와 한국 기독교총연합회의 통합을 통해 한국교회를 하나로 만든다는 목표로 활동해 왔다. 그러나 본회와 한국 기독교총연합회 간의 통합작업이 상대측의 대표회장 직무정지 사태로 인해 잠정 중단된 상황에서 또 다시 제4의 단체를 공식 출범시키겠다는 시도는 한국교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매우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다.

한교총은 그동안 제4의 연합단체로 갈 것이라는 교계의 비판적 여론에 대해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수차례 부인하면서 본회와 한기총의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을 스스로가 기구화를 통한 세력화의 전면에 나서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혹여 지금 한기
총이 대표회장 직무정지로 제 기능
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오히려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할
호기로 착각한 것은 아닌가.

지금 한교회에 참여하는 예장통합, 대신, 기성 등 주요 교단은 한기총의 불법 금권선거 및 이단 영업에 반대해 본회를 창립한 핵심 교단이다. 또한 이들 교단은 본회 창립이후 1~5회기까지 해당 교단의 증경총회장들이 차례로 대표회장에 선출되며 사실상 본회를 이끌어 왔다. 또한 본회는 창립이후 한 한 차례도 금권선거와 이단문제 시비없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순수한 연합기관으로 자리매김해 온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마당에 본회 소속의 일부 교단들이 자신들이 주도적으로 세운 기관을 허물고 새로운 연합단체를 만든다고 할 때 그 어떤 명분과 이유를 내세운다 하면 하나뿐인 계승을 인정하지 않고 한국교회가 융합하겠는가.

한교총을 주도하고 있는 일부 인
사들의 이 같은 독선적 행보의 지변
에는 앞으로 몇 개 교단이 참여할지
알 수 없는 유동적인 상황임에도 불
구하고 임버릇처럼 자신들이 한국
교회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식으로 공언해 온 데서 보듯
이 헛된 우월감과 오만이 깔려 있
다. 그러나 교회 일차와 연합운동은
다수가 소수를 배려, 양보하고 상호

존중하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일부 대교단이 좌지우지하는 구도로 연합기관의 새관짜기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교회는 영원히 하나가 될 수 없으며, 일부 대교단이 힘의 우위를 내세워 연합운동을 주도할 경우 한국교회 통합작업은 연합이 아닌 새로운 분열의 단초가 되고 말 것이다.

더구나 장로교 9월 총회를 앞둔 시점에서 임기말에 있는 교단장들이 한국교회 하나됨의 열망을 외면한 채 아날린 명분도 없는 새로운 연합단체 결성을 서두르는 것은 소속 교단에서 위임한 교단장의 권한을 크게 벗어난 행위로 한국교회 전체의 뜻에 위배될 뿐 아니라 자칫 해당 교단의 역사와 명예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을 명심하고 자중자애해 주기 바란다.

한국기독교교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함으로 그동안 대사의 대정부 추방으로 입은 손해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건가? 그 점에 있어서 는 분회도 일정 부분 책임을 통감하는 바이다. 그런데 작금에 동성애문제, 종교인괴세 등 잔악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온 힘을 모아야 할 중요한 시기에 기존 기구의 통합을 제쳐놓고 한교총이라는 새로운 단체가 출범하는 것이 이미 대사의 대정부 추방하는 한국기독교의 또 다른 분열로 인식되고 있는

이 참담한 현실에 대해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이며, 누가 뒷감당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지금 한교총에 참여하고 있는 교단 중에는 그동안 보수 기독교와는 다른 길을 걸어온 교단도 있어 장로교 총회를 앞두고 벌써부터 이 문제로 교단 내부에서 갈등이 증폭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교단적인 차원에서 분명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할 것이며, 지금까지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한교총 출범을 주도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해당 교단에서 뿐 아니라 보수 기독교계 전체가 주목하고, 우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본 한국교회연합은 한기총이 8월에 임시총회를 열어 새로운 대표회장을 선출하고 조직을 갖추는 즉시 양 기관 통합을 위한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다. 만일 상대방의 여건이 불충하여 양 기관 통합을 위한 작업이 한국교회 전체가 바라는 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될 경우, 본 한국교회연합은 본회에 소속하지 않은 교단들과 함께 하기 위해 그 어떤 기록권에도 연연하지 않고, 한국교회를 하나로 통합하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또한 진정한 바이다.

2017. 7. 1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기 위해 전액 대출이 안 되고 6백만 원이 된다는 말을 듣고 출소자 센터에 차질이 생겼다고 말한다.

8월14일이면 잔금 3천7백만 원이 당장 필요하다. 출소자의 사역은 만만한 사역이 아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해야 한다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서 안타까운 사역에 대해 간곡한 기도부탁을 요청하고 있다. 출소자들이 기여하는 동안 기술도 습득하고, 영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는 공간이 정말 필요한 시점에 잔금 3천7백만 원으로 힘들어 하는 교정 사역자 이기학 목사가 있다. 이 목사의 사역에 뜻을 같이할 지인들의 기도와 사랑의 손길이 되어주길 바라다며 눈시울이 붉어진다.

후원계좌
농협 711045-52-040573(이기학)

수용자들에게 시원한 냉면은 꿀맛

경북북부 제2교도소 도재덕 소장과 자원봉사자들의 냉면파티!



사를 통해 전 수용자(340명)에게 시원한 냉면으로 중식을 대접했다. 경북북부 제 2교도소 도재덕 소장은 이 무더위 속에서도 수용자들에게 온정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교회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하며 인사한 후 자원봉사자들에게 시원한 냉피육과 냉커피를 대접하면서 냉면을 먹는 수용자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잘 전달되었기를 바란다며 덕담을 나누었다.

교도소에서 먹었던 냉면이 생각이나서 스스로 마음을 다 잡게 되었다며 감사했다.

이날 애향교회는 수용자들이 성경필사를 한다는 소식을 접한 후 120권의 필사노트를 기증하였으며, 아울러 주민교회 정석중 목사는 주의 이름으로 교도소 담 안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것은 복 다름이 복이라면서 오려 이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경북북부 제 2교도소 종교위원회
며 기독교분과 위원장인 이기학 목
사는 '참 담양에 있는 분들은 출소
후 우리의 가족과 이웃으로 함께
살아가야 분들이라도서 이들이 비
록 죄를 범해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전
하여 주 안에서 바른 삶에 대한 주
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믿
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소망을
주는 것이 바른 삶이요 우리의 사
역이 여기에 있다고 했다.

포항에서 지저스타임즈 이기학 기자

예장(개혁) 총회, 복음공동체 다짐

전국교역자 부부 여름수양회 개최



예장개혁신회(총회장 최정웅 목사)는 지난 6월26일부터 28일까지 2박3일간 단양대명리조트에서 '제35회 2017년 전국교역자 부부 여름수양회'를 개최하고 복음 안에서 참된 공동체를 이룰 것을 다짐했다.

고 있으며, 우상종교의 세력은 문화를 가지고 세계를 재앙에 빠뜨리고 있다”며,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지금 해야 할 것을 발견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모으셨다.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된 이 자리에서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으로 힘을 얻고, 복음 안에서 교제함으로 참된 공동체를 회복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세상은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 공동체 운동을 하지만 이것은 결국 분열되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오직 복음, 오직 전도, 오직 렘넌트라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는 전도자들은 모

는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 되는 참된 공동체, 곧 율니스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 공동체는 자아를 막는 공동체요, 지주를 끊는 공동체요, 미래를 살리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전국과 세계의 모든 전도하는 목회자 가족들이 모이는 이 시간이 공동체가 회복됨으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국을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첫날 개회예배는 대화장 정인근 목사 사회로 개회되고 서기 김광복 목사가 기도했다. 이어 총회장 최정웅 목사는 개회 설교에서 '지금 해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무엇보다 인생의 근본문제에 성경적 답을 주는 기본 메시지를 강조했다.

설교에 앞서 최정음 목사는 “그 동안 전도운동에 매진하느라 늘 긴장 속에 지내왔다. 오늘은 긴장을 풀자는 의미에서 노래를 한곡을 준비해왔다”며 “엄마가 삼겹살을 준 동요를 불렀다. 참석자들은 함께 박수치며 불러 화기애애한 분위기 가 조성됐다. 첫날 개회예배는 중경총회장 박지은 목사의 축도로 폐회되었다.”

한편, 이번 여름수양회 기간 동안에는 류광수 목사(임마누엘교회)가 '지금 해야 할 것'이라는 주제로 2강을 한다.

피증진 목사 초청 7월 국내·외 부흥성회

피증진 목사

010-5255-7777
Godliness3333@gmail.com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총회
 새시대 선교부 섹터06**

T: 02)3411-9191
F: 02)3411-7770
F: 02)3411-9111

1(토)~ 2(주)	미국(U.S.A) 아틀란타 동남부노회 연합성회(준비위원장 조성호 목사) 장소: 아틀란타 사랑장교회(조남경 목사) ☎(678)654-7288 미국(U.S.A) 아틀란타 예수사랑성교회(문필경 목사) ☎(770)403-6869
2(주) 오전	미국(U.S.A) 아틀란타 제일장교회(서삼정 목사) ☎(770)934-8282
2(주) 오후	원로목사저택예측대회(이사장 임원소 목사, 준비위원장 김진옥 목사) 장소: 서울 장충체육관 ☎(02)395-1543
4(화) 오전	영인 광교제일교회(이종석 목사) ☎(031)263-7330
7(금) 오후	파주 새세계관교회(주성민 목사) ☎(031)949-9121
7(금) 철야	인양 강변성기대교회(원장 임재덕 목사, 담임 조성근 목사) ☎(031)472-7212
8(토)	충성대교회교회(오종철 목사) ☎(010)-6750-9146
10(월) 오전	부천 오성교회(정민철 목사) ☎(010)-3224-2345
10(월) 오후	연안 아가페교회(유재민 목사, 임희환 목사) ☎(010)-6231-8374
10(월) 저녁	영안시복음화대성회(준비위원장 강창원 장로)
11(화) 저녁	장소: 영주 시민교회 ☎(054)634-3124 / 주처: 일문양회기운동본부 성서 연구소교회(임우자 목사) ☎(010)-6231-7532 주최: (사)한국복음화운동본부(대표회장) 장교근 목사
13(목) 오전	서울 임마누엘교회(최옥순 목사) ☎(02)436-1777
14(금)~16(주)	대전 북부제일교회(김재홍 목사) ☎(042)932-7662
17(월) 오전	세종 추복기드림원(원장 이은혜) ☎(010)-5586-0960
17(월)~20(목)	포항 호산나교회(박민정 목사) ☎(010)-6546-0108
24(화)~26(수)	대구문교회교회(이재현 목사) ☎(053)423-7844
27(목)~29(토)	서울 복된교회(김재경 목사) ☎(010)-9087-5711
31(월) 저녁	Nyskc Family Conference KJJ 2017 장소: 전주 우석대학교 ☎(063)290-1114 주최: Nyskc World Mission(HQ:뉴욕, 총재 피증진 목사, 대표회장 최교선 목사)

지저스타임즈 · 언론부흥사협의회

지저스타임즈 신문사 언론부흥사협의회는 문서선교를 통하여
JTNTV방송, CPJTV방송을 통하여 온 세상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이사진과 부흥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신문방송을 통한 운영자가 되어주십시오.
인터넷방송인 <http://jtntv.kr> (JTNTV)은 또 하나의 방송을 추가 했습니다.
크리스찬포토저널 <http://cpj.kr> (CPJTV)을 통해 동시에 순수복음방송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고 자 합니다. 많은 지도와 격려로 후원을 바라겠습니다.

사 장	대표이사	명예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이사장	부사장	부사장	상임고문	자 문	자 문	수석상임이사	사무국장	총무국장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정기남 목사 (별령인)	정기환 목사 (전원중앙교회)	이규필 목사 (합동보수총회장)	장한국 목사 (주사랑교회)	정대성 목사 (상성중앙교회)	강오설 목사 (순복음받은교회)	이윤자 목사 (부천별령중앙교회 부목장)	박한규 목사	이흥호 목사 (축복방교회)	한규호 목사 (호헌총회장)	박형위 목사 (성현교회)	곽영민 목사 (예복부흥사협 대표회장)	백운성 목사 (안산신사자장)	곽동훈 목사 (대신총회부총회장)	홍형표 목사 (경목총회사무총장)	박동호 목사 (별령교회)	최낙현 목사 (산성그리스도의교회)	박용숙 목사 (주성강김경연교회)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실무이사	실무이사	실무이사	총무이사	운영이사 · 회계	운영이사	운영이사	운영이사	운영이사
																		
박수영 목사 (대구행복침교회)	이기학 목사 (포항이름다운교회)	주은총 목사 (은총기도원장)	이상중 목사 (새롬진교회)	곽완근 목사 (두란노교회)	김상익 목사 (신흥교회)	노병주 목사 (위재부장)	오종설 목사 (흥성제일교회)	박연자 목사 (광은교회)	김선우 목사 (인부협공동회장)	배정희 목사 (임동교회)	류기형 목사 (함동총회신대원 학장)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김병경 목사 (갈보리교회)	유순욱 목사 (조예교장신교회)	김창숙 목사 (예능부기자)	우제성 목사 (영동월드교회)	배명자 목사 (금천시온교회)	

지저스타임즈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지양로 176번길 32호 대운빌라 2층 202호 TEL 070)8230-0034, FAX겸용 032)672-3031, H.P 010_5468-6574
E-mail : jtpress@hanmail.net / jtntvcpj@naver.com

요한계시록 3장 강해(28)

하늘 보좌에 올라간 순교한 자들은 누구인가?

〈지난호 이어서...〉

다시 13절?"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귀가 있어서 필라델피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는 기록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내게 열어주시고 열린 문을 두산대로 계속 재림 주님을 증거하는 자가 됩니다. 또 귀 있는 자는 그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어떤 핍박과 어려움도 이겨내면서 주님 재림하실 때 이루어주시실 영화·존귀로써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이기는 자가 됩니다. 결국 사명이 다 끝난 후 순교한 다음에 재림 예수님께로부터 임명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므로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부터 시작해서 필라델피아 교회까지의 말씀을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이니 들으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필라델피아 교회의 이 말씀을 성령으로 하시는 말씀으로 듣고 믿어서 이기는 자는 성령의 말씀으로 살고 있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될 자, 천년왕국 성전의 기둥이 될 자들은 본문의 "교회들"입니다. 이는 계 2·3장에 나오는 일곱 금촛대 교회를 가리키며 지금까지 필라델피아 교회의 단계까지 인도함 받아서 온 것입니다.

14절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진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니라. 일반적으로 라오디케아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고 책망 받는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버려진 교회, 심판 받는 교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고한 바와 같이 계시록 2·3장의 일곱 금촛대 교회는 멸망당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일곱 번째 라오디케아 교회의 단계까지 최종적으로 이기는 자되게 하여 21절의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을 자격을 주리라."하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종 도착지입니다.

라오디케아 교회가 버림받아 멸망되는 교회가 된다면 이런 약속이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라오디케아 교회에 향하신 주님의 심정이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예수님이 라오디케아 교회에 책망을 하시고 징계하시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라오디케아 교회가 칭찬이 없고 책망 받는 교회이므로 멸망되어지는 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본문 자체로도 맞지 않는 잘못된 견해입니다.

또 주님의 입에서 라오디케아 교회를

장한국 목사
주시랑교회 담임
예정진리총회 총회장



토해내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심판을 받게 된다는 견해도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라오디케아 교회는 막 토해 내쳐질 것 같으므로 주님께로부터 사랑받는 교회로서 책망과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라오디케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나요? 라오디케아 교회와 주님과와의 관계성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서 먼저는 "아멘"이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아멘이신 주님은 아버지의 뜻·말씀·명령에 전적으로 일치하셨고 순종하셨습니다.

아멘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아멘"만 있고 "아니오"는 없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를 영어로 amen에 able를 붙여서 amenable입니다. 아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같이 사는 자는 아멘의 사람(amenable)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아멘입니다.

그다음은 예수님이 "진실하고 진실한 증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법정의 증인은 거짓 없이 자기가 경험한 사실을 진술합니다. 목을 내 놓고 진실 되게 말해야 하는 증인의 자리에 서서 자신이 겪어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 것을 함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증인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예수님이 전부 경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이 이 땅에 보냄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100% 행하셨습니다. 또 고난 받고 죽임 당하신 후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존귀하게 되셨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생애가 "진실하고 진실한 증인"입니다.

계:1:5에서도 예수님이 참된 증인이시고 땅의 왕들의 왕이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이신 예수님이 라오디케아 교회에 나타나신 것은 라오디케아 교회 모두를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그대로 따르게 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100% 이루신 것같이 이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도 끝까지 다 이루어짐을 계시한 것입니다. 현재 라오디케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도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하늘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낳으신 생명의 아들들을 예수님이 영을 지어서 아들의 영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인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하늘에 영적인 존재로 있다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온 우리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새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을 지은 창조주가 되시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것으로 새롭게 창조하시는 분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라오디케아 교회의 주님입니다. 그러므로 라오디케아 교회의 그들의 영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새로운 몸으로 창조하신 분으로부터 버려질 수가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의 손으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작을 하셨으면 중간에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완성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히 12:2에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이시라고 하였고, 롬 33:2 "그곳의 조성자인 주, 그것을 형성하여 견고히 세우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주가 그의 이름이라."고 하셨습니다. 시작한 것은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 주이십니다. 현재 라오디케아 교회에 문제가 발생하여서 그대로 끝내버리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나타나셨으므로 그분이 반드시 성취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오디케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아멘이시요 진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분이 나타나 계십니다.

15절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덤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네가 차든지 덤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이 원하는 것은 차든지 덤든지 하라, 즉 찬 것도 좋은 것이고 더운 것도 좋다는 말씀입니다. 원래부터 미적지근한 것은 없는데 아주 뜨거웠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미적지근해지는 것이고 또 아주 찬 것이 뜨거운 열을 받게 되니까 미적지근해지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 지리적 특성과 연관이 되기도 합니다. 라오디케아 교회가 위치한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 히에라폴리스가 있습니다.

그곳에 훌륭한 아와온천이 있어서 그 물이 흘러서 라오디케아 교회 지역까지 많은 거리를 두고 흘러내리다 보면 미적지근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히에라폴리스 반대편 산에는 높은 골짜기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차디칩니다. 이 물이 흘러서 라오디케아 교회 지역까지 오면 미적지근해지는 것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목양칼럼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려면(10)

〈지난호 이어서...〉

롬 7: 21-8 4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 하셨는데 아직도 새 포도주를 헌 부대에 담아서 그리스도가 조금도 유익이 없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묵은 포도주는 의문이요 옛 언약이요 율법이고 헌 부대는 옛 언약의 정신, 곧 율법 정신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에 명하신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라는 허무맹랑한 자신의 주제를 모르는 교만의 고백입니다.

새 포도주(새 언약 곧 복음과 은혜)를 이러한 교만의 고백 안에 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복음을 율법으로 다시 바꾸어 자신이 다 지켜 행하려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져 버립니다(갈 5: 4).

왜냐하면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갈 3: 10)고 했기 때문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그러면 새 부대는 무엇입니까? 새 부대는 신속성 있고 광활력 있는 새 마음이요 새 영입니다. 우리는 주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순간 이미 새 마음과 새 영을 창조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새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을 수 있고 그리스도가 이루신 모든 것이 비로소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또한 새 부대는 새 언약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피로 세운 하나님의 새 언약을 믿고 의지하는 정신을 말합니다.

골 2: 26~27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하심 같이 성령님을 우리 속에 두심으로 우리로 하나님의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는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옛 언약 곧 율법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계명을 사람이 지켜야 했기에 실패했지만, 새 언약 곧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계명을

조영만 목사

인천시온교회
JNTV운영이사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 지키시기에 실패할 수 없고 허물어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새 언약의 정신으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다 이루어 주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자기 노력을 그치고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한 후에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우리가 될 때 모든 죄에서 벗어나 줄 것입니다.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아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와 말하리라"(렘 31: 31~34).

3.기쁜 소식(1)

(가) 죄의 쓴 뿌리와(겔) 속에 있는 죄

먼저 기쁜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의 쓴 뿌리와 기 속에 있는 모든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먼저 믿음으로 죄의 쓴 뿌리와 기 속에 있는 죄를 쉽게 버릴 수 있습니다(주님께서 세상과 원수마귀를 이기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요1서 5: 4~5).

주님의 말씀과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믿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죄의 쓴 뿌리란 원죄를 말하며, 기 속에 있는 죄도 부모의 기를 통해 내려 온 죄로 결국은 시조인 아담으로부터 온 원죄인 것입니다. 이 원죄로부터 자범죄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씻으셨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기에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또한 이 사실을 믿고 주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죄사함을 주시고 성령님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십니다.

원죄와 자범죄를 가진 죄인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임을 믿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안에조차 성령님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바로 원죄와 자범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선지자들 위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성령님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원죄와 자범죄가 있는 죄인 안에는 성령님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님을 선물로 받고 자신 안에 모시고 있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원죄와 자범죄를 다 씻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원죄와 자범죄, 죄의 쓴 뿌리와 기 속에 있는 죄, 죄의 세력과 현존하는 죄를 다 버릴 수 있습니다.

가) 4. 기쁜 소식(2)

-원죄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게 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올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끊어졌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떨어져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아담은 생령이므로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요 6: 63)고 하심 같이 생령인 아담이 영생활 수 있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호에 계속〉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현교회



담임 이준복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7시30분
2부 오전 9시30분
3부 오전 11시30분
4부 오후 2시30분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346(개봉동)
☎교회(02)2618-8877-8 당회장실(02)2684-3317

대한예수교 장로회 신광교회



담임 전예희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인천시 부평구 부개1동 396-79
☎ (032)605-3351

대한예수교 장로회 시온교회



담임 조영만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오전 11시 30분
주일오후 2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8시 30분
금요예배 오후 8시 30분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1039-2 (현대프라자 301호)
☎070-7501-2584 핸드폰 010-5355-2584
다음카페 http://cafe.daum.net/choym.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소망교회



담임 서동기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3시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163-1
☎ (02)3296-0340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강대일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서울시 중랑구 상봉 1동 40-5
☎ (02)433-0291(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천복복지교회



담임 임상국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1시 30분
수요일 오후 7시 30분

대구시 북구 동변동 U선수촌 213-703호
☎ (053)741-7732, 070-4220-7735

대한예수교 장로회 풍성한교회



담임 서재식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신천동 707-58 401호
☎ (031)315-829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담임 고정규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시
오후 2시

경기도 시흥시 검바위1로 52-1
☎ (031)312-2613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장승현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주일 오후 오후 2:00
삼일예배 오후 7:30

충남 당진시 송악읍 봉학로 62-5(봉곡리 55-6)
☎ (041)356-0644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심교회



담임 사겸열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예배 오전 10:30
주일 2부예배 오후 1:30
수요 밤예배 오후 7:00
금요밤기도회 오후 9:00
심야작정기도회 오후 9:00(365일)

주소 :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114-4
H.P : 010-5225-1253

(인천)은총 기도원



원장 노은총 목사

집 회 안 내
◇매월 첫째 주(월-목)정기집회 (세계주영광부흥사회 주관)
◇매월 셋째 주(월-목)정기성회 (지저스타임즈 언론부흥사협의회 주관)
◇매월 넷째 주(월-목)정기집회 매월 밤 10시 기도회

주소 : 인천시 남구 주안 2동 486-27(2층)
H.P : 010-6327-0191, 070-7518-8195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임마누엘교회



담임 백은성 목사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낮예배 오전 11시
주일찬양예배 오후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일동 553-5
☎ 031-406-7793 H.P : 010-2479-7793

■ 성막 영성 “구원 서정의 5단계” 14

II. 성막을 통한 구원사역의 비밀

〈지난호 이어서...〉

4)방향이틀렸다면 즉시 유턴(U-turn)하라.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고통케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라를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사 58:3) 이러한 것을 볼 때에 참 회개야말로 믿음의 첫 단추요, 믿음생활의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고 할 수 있다. ‘여호와여 주께서 저의 손으로 행한 대로 보옵소서’(애 3:64)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옵하시되’(롬 2:6)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민 14:28)

성막말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 중에서 두 번째로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며,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자리이다. 자기 죄를 깨닫고 진실로 죄인임을 시인하고 회개할 때 다음 단계인 변제 단으로 나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던 우리 인간들을 구원코자 십계명을 주시어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를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이 바로 성막의 제사법이다.

사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만 잘 지킬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었는가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님이 오실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들의 악한 심성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경은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 성막을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였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성막의 실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이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는 ‘그저 착하게 살면 되지, 꼭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실체가 없는 하나님을 믿는,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문제는 하나님이 백성이라면서도 실체가 없는 하나님을 믿는 잘못된 믿음인데,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 첫째, 막연히 믿는 믿음을 말한다. 그저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하나님이 계시겠지……’ 하는 불확실한 믿음이다.

둘째, 실체가 없는 구름 같은 존재요, 안개 같은 존재로 허상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러한 믿음 속에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저 이론적인 하나님, 아무 힘도 없는 무형의 안개 같은 존재의 하나님만이 있다. 그러므로 변화되지 않는 신앙생활은

송택규 박사
JTNTV 주필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하였고 본인 자신도 힘들어하며 살아간다. 이렇게 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아니라 잘못된 다른 믿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그러면 다른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른 믿음(갈 1:9)이란 글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체는 예수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사상, 다른 생각을 믿는 것을 말한다.

3. 다른 믿음의 실체들

그렇다면 다른 믿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첫째, 율법적인 믿음이다. 바리새파적(눅 18:9-12)인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을 말하는데, 형식과 틀과 벽을 쌓고 사는 믿음을 말한다(마 23:3-7, 13-30). 즉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을 완전히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들은 율법 자체를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마 12:21, 요 5:10, 마 15:2).

둘째, 미신적인 믿음이다(사 1:11-12). 이 믿음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을 망령되이 믿는 믿음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믿어놓고 열심을 내는 믿음이다. 셋째, 가복적인 믿음이다(골 1:8-12, 행 8:18-19). 예수를 믿되 복 받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다. 주님은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다.

넷째, 추상적인 믿음이다(계 3:15-18). 이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믿음이다. ‘진정 하나님이 계시까?’ 하는 막연한 믿음(롬 1:19-20)으로, 안개 속을 헤매는 것과 같은 믿음이다. 다섯째, 자기중심적인 믿음이다(롬 2:1). 공부를 많이 했든지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 중에서 볼 수 있는 믿음이다. 즉 자기 생각이 100% 옳다고 믿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바꾸려 들지 않는다. 믿음도 자기 마음대로 판단한다. 또 아무리 틀렸어도 죽어도 자신의 생각을 고수하려는 믿음이다.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들은 마귀가 심어놓은 것이다. 마귀는 이런 잘못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다. 교회는 이러한 잘못된 신앙을 버리게 하고, 성경적 신앙관

으로 바꾸어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성경에만 있기 때문이다. 자신이 달려가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면 즉시 궤도수정을 하라. 즉 우회전(Right turn)을 하든지 유턴(U-turn)을 하라.

성경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으로……

1) 다른 믿음으로 인한 죄악들(롬 1:29-32, 갈 5:19-21, 딤후 3:1-4) 죄는 크게 원죄와 조상죄와 자범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원죄는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 언약이 파괴되고, 선 자체 이신 하나님의 영인 성령과 분리되고, 사단의 속성이 죄가 들어왔다. 그 후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은 유전의 법칙에 따라 죄의 씨를 잉태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인간들은 원죄를 가진 존재로 태어나게 되었다.

또 그 유전적 죄의 씨를 우리의 조상들로 하여금 타락하게 만들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자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성경은 다른 믿음에서 나온 죄악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또 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상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함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 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롬1:28-32)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갈 5:19-21) ‘너는 저희로 하여금 정사와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일 행하기를 예비하게 하며 아무도 해방하지 말며 다루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에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딤후 3:1-4)

〈다음호에 계속〉

大韓民國 의 未來를 위한 教育의 改革을 위한 研究 (12)

(韓國近代教育의 始作과 發達의 歷史的 考察)(1884년-1945년)

〈지난호 이어서...〉

그것은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임을 가르쳐 주면서 교훈을 “경천애인”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다. 삼일 운동의 주체가 누구인가 또한 실제로 드러나지 않았던 운동의 실체들이 있었다는 것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 독립선언문에 기록된33인 만이 아니라 수많은 선교사들과 교회의 성도들과 어린학생들이 자기의 목숨을 던지며 마음이 하나 되어 일어난 사건이다. 여러 곳에서 뜻을 같이 한다는 서명 운동이 일어났고 전국적인 준비와 움직임이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어찌 동시다발적인 운동이 떠난위로 일제히 일어났을까. 그리고 3.1일만 만세가 불러졌을까 이 운동은 전국적으로 이어지며 한반도전역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일제는 이 사건을 역사에서 덮으려고 3.1일 운동은 소요사태 정도로 기록했다. 탑골공원에서 도망쳐 기생집 명월관 에서 소수가 모여 선언문 하나 낭독하고 만세 몇 번 부리다 집합당한 데모가 아니라 우리 민족이 독립을 바라며 하나가되어 무저항으로 일제의 무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히 선포했던 평화의 외침이라고 생각한다.

진정한 개혁을 바라는 이 시대 우리에게 이런 믿음과 평화의 행동이 필요하다 생각된다. 3.1운동이후 일제의 정책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일제는 강압으로는 도저히 한국인들을 식민화할 수 없음을 느끼고 민심을 수습할 방도로 회유정책을 펼친다. 1919년8월 일본수상 의 연설이 있었다. 일제의 강압을 인정하고 앞으로 조선의 모든 정책에 개혁을 할 것인데 교육, 산업, 및 관리임용과 같은 것에 일본사람과 차별하지 않고 점차 같은 대우로 동등하겠다는 내용이다.

일단 사건을 수습 하기위한 수단임을 모를 한국 사람이 어디 있었겠는가. 바로한달후 1919년9월 2일“강우규” 열사의 폭탄 세례를 받으면서 새로운 조선총독 “사이토”가 부임한다. 새 총독 사이토는 소위 문화정치를 표방한다. 그가 주장하는 문화정책 속에는 “교육개혁”이 포함되었다. 그는 부임하자마자 한국의 학교 교육을 이끌어 왔던 선교사들과의 만남과 대화를 원했다.



김창룡 목사
칼럼리스트 金 昌 龍 牧師
(하나님이지자인하신교회)

얼마나 바라고 기도했던 것인가. 3.1운동이 실패가 아니고 성공이라고 필자가 말한 것은 한국교육의 빚장이 풀리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선교사들은 1919년9월 선교회연합회의가 경성에서 열렸다. 감리교회의 2개교파 (미감리교회, 남감리교회)와 장로교회의 4개교파 (북장로교회, 남장로교회, 호주장로교회, 캐나다장로교회)로 이루어졌다. 일제에 강압에 주춤해서 살길을 모색하기위해 저들의 눈치를 보며 움직였던 선교사들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조선총독 사이토에게 다음과 같은 선교사들의 결의문을 전달했다. 이항의문에는 구체적인 교육제도의 개선사항이 요구되었다.

제한 선교사 연합회의 결의문

“우리는 각자가 조선통치의 시정을 변경할 계획이 있다는 말을 듣고 못내 기뻐하노라. 합병 전부터 조선에 거주한 우리는 한국을 합병한 일본이 우리의 기대와 어울어져 전국에 무단정치를 베풀고 합방이전 우리들이 받아 가진 종교와 교육의 자유를 제한하고 조선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규정하고 조선인을 억압하고 가혹히 다룬 결과로 도리어 조선인의 반항을 사서 본년의 독립소요를 빚어내는데 이런 것을 보고 통절히 실망을 느끼었다.”라고 전하고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개선을 요청하였다.

가) 기독교주의의 사립학교에 있어서 성서와 종교적 예식을 과묵에 넣는 것을 허락해 줄 것. 기도교주의 사립학교의 목적은 기독교에 터를 잡은 고등교육을 실천하는데 있으므로 성경을 가르치고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은 전 세계의 기독교 학교들의 일반적인 특권이다. 기독교의 교리와 정신으로 선량한 국민을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우리 기독교학교들이 이것을 가르치길 바란다.(중략) 우리는 조선에 사립

학교의 종교교육의 자유를 일본과 같이 동일하게 하여주길 바란다.

나) 조선어를 교육하고 쓸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철폐하라.

조선 학생이 일본어를 배우고 그것을 익히기 위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기의 말을 쓸 권리가 있는 것이기에 학교에서 조선어를 교육 또는 시험하는 일을 허락하라. 다) 사립학교 경영에 관하여 현재 이상의 관헌의 간섭을 철폐하고 학교의 자율에 맡겨라.

일제는 교장 인선, 교사의 선정, 봉급가지 일일이 간섭하고 교과서의 내용, 학교의 모든 것을 간섭하고 있었다. 조선인을 교장으로 세우고 교사도 조선인을 쓸 수 있도록 허락하라.

라)생고와 생도의 양심의 자유를 인정하라. 기독교 학교의 생도들을 일요일에 동원시키고 교사자격시험을 치루 게 하는 일들을 시정하라. 천황예배의식 신사참배 에 참여 하는 것을 강요하지마라. 살아있는 폐해를 신격화하고 그에게 절하는 것은 우리기독교의 계명에 위배되며 기독교인들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므로 이를 강요하지마라. 마) 조선인에 대하여 교육상 일본인과 동일한 기회를 주고 교과서를 택하는 데는 일층 자유를 주고 또 조선의 역사와 세계사를 가르치는 것을 제한하는 규칙을 철폐하라.

바) 총독부의 허가를 얻은 기독교 사립학교의 졸업생은 공립학교의 같은과정 학생들과 동일한 권리를 주라. 이 항의문은 이밖에 의료기관, 종교, 문학, 소유권, 재정상문제, 도덕개선, 등 다양한 부분이 있으나 생략 함. 이후 “사이토”총독은 이듬해3월 사립학교 규칙을 개정한다. 내용을 보면 선교사들의 제안을 다수 수용한 부분이 보였다. 선교사들과 친분을 가지고 외교적인 마찰을 피하려고 자주 선교사들을 초청하고 사립학교를 방문하여 우의를 다졌다.

외교에 능수능란한 정치가였다. 1920년 11월 교육령 이 일부를 수정하여 발표하였다. 총독부는 세계 각국의 식민지 교육제도를 참고하고 안으로는 소위 임시교육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기초조사를 마쳤다. 이 위원회는 거의 일본인들로 채워졌다.〈다음호에 계속〉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정기환 목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일로75번길 30-5
☎(032)321-9109

전원중앙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1부 주일 오전 11:00
2부 오후 1:30
주일저녁 오후 7:0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김선우 목사

인천시 부평구 청천1동 48-161
H.P 010-3499-2441

주사랑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오전 11시 오후 2시
수요일 7시, 금요일 저녁 7시
화요일 2시 집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오종철 목사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로 146번길 36-8
☎(041)634-0441(사무실) 633-6146(목양실)

홍성제일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9시
2부 오전 11시
주일밤 오후 7시 30분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배영자 목사

서울시 금천구 독산로24길 11(2층)시흥동
H.P 010-9600-5028

금천시온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오전 10시30분 오후 2시
새벽예배 6시
수요예배 저녁 7시30분
금요예배 저녁 7시30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박민규 목사

경기도 양주시 남면 구암리236-4
☎(02)385-2571/010-9621-9627

새생명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0시30분
오후 2시00
수요예배 저녁 7시0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이혜진 목사

주소 : 경기도 부천시 송내동 383-21
☎(032)667-7147 H.P 010-3287-1500

벧엘중앙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1:00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기도회 저녁 9:00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최순란 목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냉천로177 지하 1층(안양동)

주능력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오전 11시
주일오후 7시
수요일 오후 7시
새벽기도 오전 5시30

장기요양기관(행복의집)



원장 박순중 목사

www.1004tv.net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늑구리
☎(033)541-0687 H.P 010-7405-9191

가족처럼
어르신(환자)을 모십니다.
(등급편정-1급-3급차 원형)

강릉산성그리스도의교회



담임 최낙현 목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오이골말길58-20
☎(033)655-0691, 0692 H.P 010-6409-0091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오전 10시 30분
오후 1시
오후 1시 30분
오후 2시

대한예수교
장로회



담임 박연자 목사

주소 : 인천 남구 주안 4동 1483-4 (3층)
H.P 010-6237-9755

광은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오전예배 오전 11시
주일오후예배 오후 2시
수요저녁예배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

기독교대한
성결교회



담임 박완근 목사

충남 공주시 봉황동 96번지
☎(041)854-3676 H.P 018-320-1507

두란노교회

주 일 예 배 안 내

주일 1부 오전 11시
2부 오후 2시
수요일 오후 7시

조에 교정선교회



담임 유순옥 목사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장내로 89번길 9-1 102호(안양동)
☎(070)8632-6993 H.P 010-3035-5704

조에/생명살리는 교정선교
침송교도소
침주교도소
춘천교도소
직훈(직업후련소)

예장(진리)총회 설립1주년 맞아 하계수련회 종료

장한국 총회장 ‘계시록을 통한 주 재림의 비밀을 깨달으라!’ 열강



대한예수교장로회(진리)총회는 교단설립 1주년을 맞아 지난 6월 12일(월)~14일(수)정오까지 총회 임원 및 교육부 주관으로 충북 충주시 양성면 컨벤션리조트에서 2박 3일간 하계수련회를 개최했다.

예장진리총회는 2016년 6월 6일 동해안 금호리조트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 장한국 목사(주사랑교회)를 만장일치 제1대 총회장에 선출하고, 임원 및 총무를 선임했다. 진리총회는 지난 1년을 열악한 가

운데 총회를 이끌어 오면서 출범 1주년을 맞았다. 총회장 장한국 목사는 진리총회설립 1주년을 기념하는 1부 감사예배를 드렸으며 총회 발전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 세계선교를 위하여 JTNTV방송과 신문사 문서선교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회를 가진 후 2017년도 하계수련회 첫 시간 강의를 진행되었다.

‘계시록을 통한 주 재림의 비밀을 깨달으라!’ 주제로 열강에 나선 총회장 장한국 목사는 장시간 종말에

대해서 말세에 주의 종들의 사역에 대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마지막 진리를 외치는 종들로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했다. 이번 특강을 통하여 많은 목회자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 는 영성회복의 뜨거운 장이되었다.

이번 진리총회설립 1주년을 맞아 첫 시간 총회교육부장 박민규 목사의 인도로 오프닝을 갖고, 총회 회계 김정미 목사의 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사 49:1-3),

복음가수 유순옥 목사가 특송을 하고, 총회장 장한국 목사는 “나로 마광한 화살로 만드사”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한 후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첫날 특강은 12일(월) 저녁 7시부터 시작되었으며 14일(수) 정오까지 4차례 진행되었다. 첫 시간 사회 교육부장 박민규 목사, 기도 김은임 목사, 장 총회장의 특강 계 1장 2장, 다음날 오전 사회 송영희 목사(총회 감사), 기도 이수열 목사(새서울노회), 찬양에 허승희 목사, 장 총회장의 계 3장 4장 특강, 둘째날 저녁은 사회 김진완 목사(대한노회), 기도 정삼열 목사, 총회장 장한국 목사의 계 5장에 대해 특강을, 셋째날 오전 사회 박명자 목사, 기도 유순옥 목사, 장 총회장의 특강 계 6장~7장을 중심으로 이시대의 사역자로서 깨달아야 할 것 등을 주관하고, 14일(수) 오전 12시 총회설립 1주년을 기념하는 2017년도 하계수련회와 은혜와 진리로 재충전된 목회자들은 아쉽지만 화가에매한 가운데 다음을 기약하고 각자 섬기는 목양지와 일터로 향했다.

한편 지저스타임즈 JTNTV(<http://jntv.kr>)에서는 총회장 장한국 목사의 주옥같은 말씀을 동영상상을 통해서 현재 진행 중이다.

주능력교회 이전기념 임직감사예배

예장진리총회 대한노회(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경기도 안양시 삼덕로 소재 주능력교회(최순란 목사)에서 지난 7월 1일(토) 오전 11시 교회 이전을 기념하며 임직감사예배를 드렸다.

최순란 담임목사는 교회 개척 10년 만에 그토록 기도하며 원원했던 응답으로 새롭게 된 건물, 아름다운 곳으로 교회를 이전하면서 최초로 안수집사 임직을 갖게 되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다.

이날 최 목사는 마지막 때 추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고

면서“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 붙어있는 교회, 재림하실 주님을 신랑으로 맞이할 신부가 되는 교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오시는 주님께 붙은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이김의 교회”가 반석위에 세운 주님의 교회라고 했다. 또한 주님의 교회는 말세에 성령을 힘입어 환란이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난이 와도 기쁘게 여기고, 이기고 승리하는 주능력교회가 되기를 피력했다.

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2부 임직자 감기성씨를 호명하고 주능력교회의 신실한

주능력교회 최순란 목사, 교회설립 최초 안수집사 임직식 가져

록 더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힘을 다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사각오로 사역을 다할 것이라며 다짐했다.

이날 임직식에 앞서 노회

서기 박민규 목사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노회 회계 김정미 목사의 기도, 박민규 목사의 성경봉독(마 16:18), 노회장 장한국 목사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장 노회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능력교회의 그 믿음위에 교회를 세운다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그 본분을 다하기로 선서하고 안수위원의 집례로 안수집사로 임직을 거행한 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능력교회의 안수집사가 된 것을 공포하고 안수패를 증정했다.

아울러 예루살렘 찬양단의 축하에 이어 도신교회 원로 안홍기 목사의 축사, 교인대표의 축하, 감기성 안수집사의 인사 및 감사, 담임 최순란 목사의 내빈들 소개와 감사의 인사가 있은 후 노회장 장한국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공동취재 이진영, 광영민 기자



JTNTV홍성에서 이사회 및 언론부흥사협회 기도회 가져

전국지사장, 이사진 한 자리에 모여 덕담과 비전제시

한국기독교를 대변하는 신문방송 지저스타임즈, JTNTV방송은 이사회 및 언론부흥사협회의 월례회를 지난 6월 23일(금) 오전 11시 충남 홍성군 홍성읍 내포리 홍성제일장로교회(담임 오종설 목사)에서 모임을 갖고 1부 예배 및 2부 기도회를 가졌다.

본사 사무국장 광영민 목사(인천지사장)의 인도로 1부 예배가 시작되어 부이사장 장한국 목사(예장진리총회장)의 기도, 포항지사장 이기학 목사(상임이사)의 특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안겨주었다. 이어 상임이사 오종설 목사(홍성제일장로교회/충남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는 살전 5:16-18절을 중심으로 “주님의 뜻”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김선우 목사(실무이사)의 봉헌찬송, 김부경 목사(실무이사)의 봉헌기도, 본사 사장 소진우 목



사(연수원장/예복교회)는 환영사를 통해 지저스타임즈가 한국교회에서 기독교를 대변하는 대변지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JTNTV방송의 엄청난 조회 수 1억6천만을 넘어섰

다며 더 많은 본사 발전을 위해서 협조와 기도, 후원을 부탁했다. 대표이사 정기남 목사(영광교회)는 지사장 및 이사진 한분 한분을 소개하는 등 인사가 있었다.

특히 본사 언론부흥사협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끊임없는 기도로서 성령충만을 힘입어 영감이 넘치는 문서선교로 또는 JTNTV 인터넷방송을 통해 복음전파에 힘써

표어: 창세로부터 주님재림시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영혼을 구하는 교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광교회 성도들은 매주 목요일 200-300명의 지역 어르신들을 섬기며 정성을 다하여 때론 삼계탕, 국수를 대접함으로 소문난 교회로 부흥성장하고 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영광교회



담임 조강수 목사



●담임목사: 조강수
●부 목사: 이주홍
●협력선교사: 김종록, 이두원,

차명호, 권오성
●장 로: 임청수, 김준현,
고재훈

●교육전도사: 이민규, 이주영
●전 도 사: 양승숙

●성가 대장: 박남주
●지 휘: 박성진, 이희선
●반 주: 권혜영, 홍은지, 박진주,
이요한

◆예배시간안내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 오후 6:30
수요 밤 예배: 저녁 8:00
금요일아침 예배: 밤 11:00, 새벽예배: 새벽 4:30

주일학교 예배: 주일 오후 1:00,
학생부, 청년부 연합예배: (토)오후 6:00

한기총 임시총회, 법원 판결따라 후보들 유.불리 결정되나

한기총이 차기 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둔 임시총회 개최방안은 두 가지이다. 임원회에서 상정하거나 총대 1/3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꼭 대행이 법원의 허락을 얻어 개최하면 된다. 그러나 이 두 방안 모두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대표회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김노아 목사가 이영훈 목사의 대표회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에서 승소한 이후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영훈 대표회장이 세운 임원 75명도 불법이므로 이들의 직무도 정지시켜야 한다고 가처분 소송을 냈다. 현재 법원은 지난 6월 28일 심문을 종결하고, 오는 7월 12일까지 추가 자료를 포함해 사건을 살핀 후 가처분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임원 직무집행정지를 가처분을 수용하면 임원회를 통한 임시총회는 불가능하다. 오직 총대 1/3이상 소집요구로만 임시총회가 가능하다. 문제는 임원자격이 정지되면 당연직 총대인 임원은 피선거권 및 선거권 역시 자격이 박탈된다. 현 임원은 그 누구도 출마 할수 없게 된다. 또한 투표에 참가하는 선거인 총대수 역시 달라진다. 결국 선거인수를 확보하는 측의 후보자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오랜 침체에서 다시 일어서야 하는데...



▲ 한기총 비대위에서 기자회견 중에 홍재철 목사가 발언하고 있다.

한기총이 차기 대표회장 선거를 앞두고 둔 임시총회 개최방안은 두 가지이다. 임원회에서 상정하거나 총대 1/3이상이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면 꼭 대행이 법원의 허락을 얻어 개최하면 된다. 그러나 이 두 방안 모두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법원이 임원 직무집행정지를 결정하면 이영훈 측이 내세운 후보가 불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유는 현 한기총 임원중 기하성 여의도 인사만 23명이 포진해 있기 때문이다. 반면 비대위측은 한기총 회원 중 38개 교단과 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어 자신들이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이 현 임원자격을 그대로 인정할 경우 박당의 승부가 될 가능성이 높다.

7월 중순 법원 판결 직후 이영훈 목사 측과 비대위측은 총대 1/3이상 동의를 받아 임시총회를 소집 요구 할 것으로 보며 8월 중에는 임시총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한기총을 이끌고 나갈 차기 대표회장 후보가 마땅하지 않다는데 한기총 회원교단들의 고민도 깊다. 현재 하마평에 오른 인사는 재도전하는 김노아 목사, 비대위 상임고문 홍재철 목사, 이영훈 측이 내세운 엄기호 목사, 엄신행 목사 등이 거론된다. 그러나 엄기호, 엄신행 목사는 법원이 임원자격을 정지시키면 출마자격이 없다. 김노아 목사 경우는 합동측에서 이단성 조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무조건 출마하겠다는 입장이고, 홍재철 목사는 총대들이 원하면 출마하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자진 출마 인사는 김노아 목사뿐이다. 만약 이영훈측이 지원하는 후보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홍재철 목사가 무임승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오랜 침체에서 한기총이 8월 임시총회에서 누구를 새로운 선장을 할지 귀추가 되고 있다.

서유체 기술전수 교육『제2기생 모집』

아쿠아포닉스 자연재배 전문농업인교육



새로운 서유체 기술전수 교육을 목적으로 많은 이들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경제적인농업교육을 지난 1차에 이어 제2기생을 모집하고 있다.

특히 기후 환경에 따른 문제점 극복 유기능 그 이상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경제적인농업교육에 좋은 식자재식물 지속적으로 생산 공급하는 전문 농업인 육성에 있다.

이번 아쿠아포닉스 자연재배 전문농업인교육은 오는 7월 28일-7월 31일(3박4일)까지 진행된다. 예비소집일인 오는 7월19일 오전 09시(수)대한신학대학원대학교 201호 강의실에 있을 예정이며 설명회 H.P 010 6826 2688가 된다. 설명회 강성탁 교육원장(안양시 석수역)이다.

또한 실습장소 서유체 태안농장은 충남 태안군 태안읍 용남로 526-12번지이며 조성희님의 핸드폰 010 6771 7315이다. 선착순10명으로 제안하고 있다.

교육내용은 이론/실습, 시설 자재, 대상은 귀농 귀촌 자영업 정년퇴직자이며, 비전은 아쿠아포닉스/미래농업/ 도시농업/등이다.



“우리가 다시 서게 하소서” 4,000여 원로목회자 한자리에 모여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 및 원로목회자 체육대회’ 성황리 개최

‘2017년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 및 원로목회자 체육대회’가 작년에 이어 4일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우리가 다시 서게 하소서’의 주제로 성대하게 개최됐다.

이날 대회는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이사장 임원순 목사)이 주최하고 2017년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 조직위원회(명예총재 이태희 목사)·한국기독교교스포츠통연합회(총재 강영선 목사)·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총재 정근모 장로)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이번 대회는 약 1만 2천여 명의

원로목회자들 중, 선착순으로 신청한 원로목회자 부부 4천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특히 올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와 함께 진행해 더욱 뜻 깊게 치러졌다.

김진욱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 대표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대성회는 문세광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 대표회장)의 대표기도,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의 설교, 김상복 목사(햇빛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총장)·이태희 목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총

재)·정근모 장로(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 총재)의 특별메시지, 특별기도, 임원순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 이사장)의 인사말, 강영선 목사(한국기독교교스포츠통연합회 총재)의 환영사, 한은수 감독(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 명예회장)의 취지문 낭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이영훈 목사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나라”(롬 8:28) 말씀을 믿고 감사드리다”면서 “평생을 복음전파에 헌신하신 원로목사님들께 하나님 의 큰 축복이 임할 것”이라고 설교했다.

임원순 목사는 인사말을 통해 “원로목사님들은 우리의 믿음의 부모이다.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고 영적 성장을 도와주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있다. 이 원로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은혜의 빛을 갖기 위해서 대성회와 체육대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전했다.

개회사 한 한은수 감독도 “오늘은 한국교회 성도가 원로목회자들을

응원하고 그 분들의 아낌없는 회생에 감사하는 날”이라며 “우리가 다시 서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오늘 행사를 통해서 원로목회자들이 영육간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인생의 마지막 불꽃을 태우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립인식 목사(예장 통합 중경총회장)·최복규(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 중경회장)·김동권 목사(한국교회연합 명예회장)·김진호 감독(기감 중경감독회장)·김명혁 목사(한국복음주의협의회 회장)·송용필 목사(한국기독교교스포츠통연합회 대표회장)·김성길(한국기독교언론재단 고문) 목사가 차례로 단에 올라 격려사 및 축사를 전했다.

이어 배진구 목사(한기총 사무총장)의 인도로 참석자들이 ‘우리가 다시 서게 하소서’라는 구호를 제창과 성금전환, 신신목 목사(한국기독교지도자협의회 대표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서 체육대회는 박진섭 목사(대회준비위원)와 ‘뽀빠이’ 이상용 씨(방송인)의 진행으로 강민원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 중경회장)의 대회기도, 강진문 목사(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 공동회장)와 조



목관 사모가 선수대표로 선서를 한 후 청팀과 백팀으로 나뉘어 그라운드 골프와 공타트, 국자, 계주, 미니 불링과 투호, 카드 뒤집기, 바구니에 공 넣기, 큰 공 굴리기 등 원로들이 쉽게 즐기면서 참여할 수 있는 종목들을 소화했다.

추진위원장 이주태 장로(한국기독교평신도총연합회 대표회장)는 “한국교회는 은퇴하신 교계의 원로목회자들을 존경과 명예로 예우해야 한다면서 오늘의 이 대성회와 체육대회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은 2014년 설립 이후 은퇴 원로목회자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회관 건립이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7층에

서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원로목회자를 위한 수요예배(담임 한은수 목사, 한국원로목회교회)를 드리고 있으며 목자가페를 오픈한 원로목회자에게 무료로 커피와 차, 다과 등을 무료로 봉사하며 원로목회자 섬김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원로목회자를 위한 수요예배는 전국에서 초교파적으로 300여 명 이상의 원로목회자가 참석을 하고 있으며 예배의 참석을 원하는 원로목회자는 한국기독교원로목회자재단(02-741-5407)으로 문의를 하면 부부 동반으로도 예배 참석이 가능하다.

참고 JTNTV방송 <http://jntv.kr> 에서 대회 사진과 기사를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삼성중앙교회

표어 :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이라

2017 쉼어

- 선교하는 교회
- 사랑하는 교회
- 부흥하는 교회

당회장 정 대 성 목사

경기도 김포시 운곡로9번길 15, (장기동 131)
☎ 010-6418-3468

예/배/시/간/안/내

- 매일새벽예배 : 새벽 5:30
- 주일 낮 예배 : 오전 11:00
- 주일전야예배 : 오후 2:00
- 저녁 기도회 : 매일 오후 8:00
- 토요직분자교육 : 오후 7:00
- 청년 / 학생부 : 통합예배
- 수요일 예배 : 오후 7:30
- 금요일예배 : 금요일 오후 7:30

예장(합동보수)

총 회장

이규필 목사 (동천교회)

교육부장

전예호 목사 (신광교회)

총 무

조영만 목사 (시온교회)

교육부서기

김관호 목사 (세향교회)

본 합동보수교단은 뜻을 같이 할 교회와 기관, 교단 가입을 환영합니다.

합동보수교단 소속 신학교는 신학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총회신학대학원

총장 윤 석 칠 박사

경남신학원

학장 정 호 석 목사

영남대구신학원

학장 황 호 주 목사

사단법인 예장합동보수연합신학교

이사장 이 규 필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보수총회)사무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153길 94(가산동 151-47 동천교회)
☎ H.P 010-7474-3173, 02)854-1326, 496-0181(FAX)

http://www.mokpojuan.com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담임목사 모 상 련

섬기는 분

담 임 : 모상련 목사

부 목 사 : 모정선 김길현 박민수 모성운 (은퇴) 장정화

합동 목사 : 추정희 진인순 윤영욱

심방전도사 : 피승선교사 : 임재선(선교지베트남)

김은미(선교지베트남) 안윤기(선교지캄보디아)

피송선교사 : 김진희(선교지캄보디아) 김미경(선교지적도니)

교육전도사 : 면베트남신학교 유학

주소 : 58714 전라남도 목포시 청호로 159(산정동)
☎(061)272-4908, 278-0692
팩스:(061)278-0693

수도권지역 주택 · 대지 특별분양

경기, 여주

전원주택지 1차 택지완료
전원주택 2동 건축, 1동 건축허가
6동 건축준비완료

은행대출 분양가에 70%

여주상수도개설, 전기, 통신(인터넷, 유선방송) 지중화

기독교인이 노후에 편안하게 보낼 수 있는
여주전원마을을 만들었습니다

대지 특별분양 (6,820만원)

2~3년 후에 건축하실 분을 위하여 대지를 분양합니다.

(대지 330㎡/100평 + 도로 33㎡/10평) = 333㎡/110평

평당 3.3㎡/62만원 × 333㎡/110평 = 합계 6,82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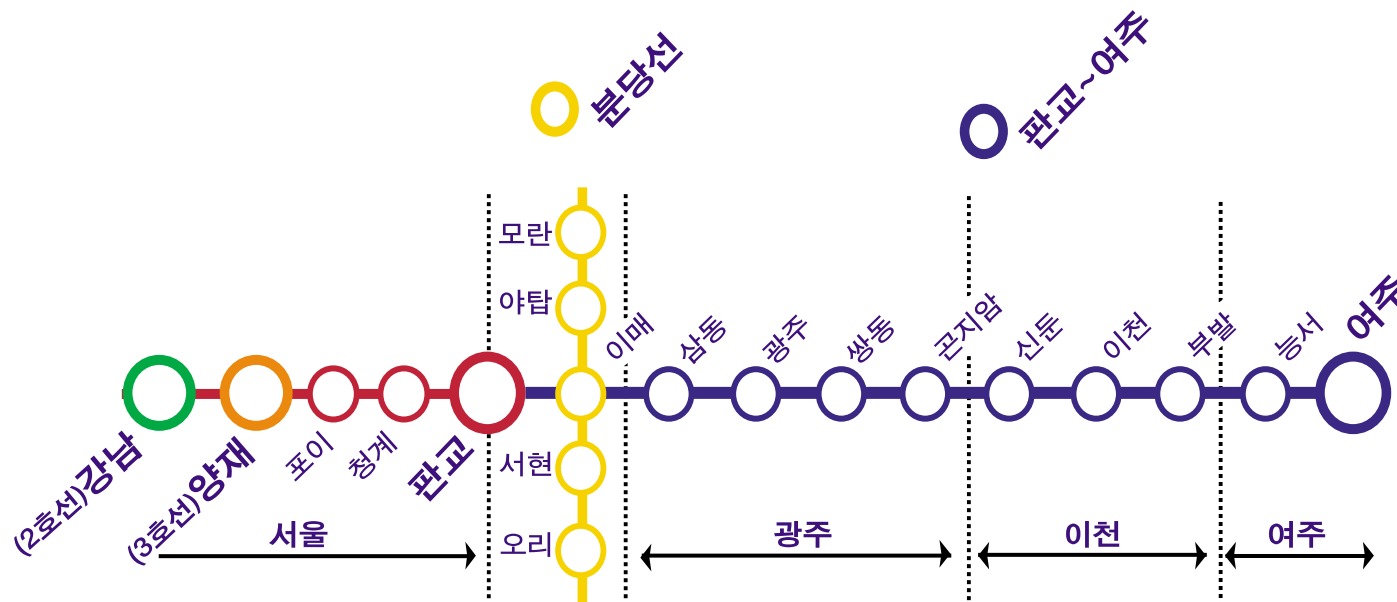
목조주택 특별분양

(2층 30평, 99㎡. 1억 8500만원/방3. 화장실2. 거실. 다용도실)

(1층 22평, 72.6㎡. 1억 5500만원/방2. 화장실1. 거실. 다용도실)

주택 99㎡/30평 = (1층 72.6㎡/22평. 2층 26.4㎡/8평)

대지 333㎡/100평. 도로 33㎡/10평. 합계 366㎡/110평



교통환경

- ◆ 제2영동고속도로 개통
- 중부고속도로, 광주에서 서원주까지 (56.95km) 개통됨
- 대신IC에서 전원주택 현장까지 2km (2~3분 소요).
- 강남, 분당에서 대신IC까지 30분.
- 천호동, 구리시에서 대신IC까지 45분.
- ◆ 여주 전철역(강남 분당에서 여주까지 11개역 57km) 개통됨.
- 강남 분당에서 여주 전철역까지 45분.
- 전원주택에서 여주시청, 여주 전철역까지 차량 12분.
- 양평 전철역까지 차량 20분(양평에서 전철로 청량리까지 50분).
- ◆ 제1영동고속도로까지 20km 15분.
- 중부내륙고속도로까지 5km 5분.

I 주 소: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초현리 312-4호(초현리 산 48번지)
I 전원주택 홍보 전화번호
010-5468-6574 / 010-3478-6574
I <http://jtntv.kr> (JTNTV방송) 배너광고 중

분양 문의 02) 854-1355